

# 순창군 승마장 10월 개장

### 사업비 총 57억원 투입 군민 여가선용 등 기대

오는 10월이면 순창 공공승마장에서 관광객과 군민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공공승마장을 10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1만9,735㎡규모에 실내외 마장 마사와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2015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57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공공승마장은 강천사-공공승마장-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체류형관광코스는 해마다 10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강천산과 최근 발표 소스토굴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에 승마장체형 관광코스를 더해 하루 이상 관광코스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특히 승마장 인근에 축산진흥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어서 먹거리가 가미된 시너지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



순창군은 지난해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공공승마장을 10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으로 30~40분 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운영상 강점으로 평가된다.

군은 관광객 유치 이외에도 승마장이 군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아이들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군민들을 위한 레저시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창군체육회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순창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승마체험교실 등을 운영한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은 10월 운영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말 관리를 위

한 전문인력과 마필관리원 등 인력을 충원하고 말 9필을 들여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9월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승마인구의 확대에 따라 승마가 생활스포츠로 정착되면서 승마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주나 전주의 승마레저인구 유치는 물론 군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승마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청정지역 지키기 최선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도모 양심화분 이어 다용도 분리수거함 시범운영 실시

임실군은 쓰레기 비정상 행위의 의식전환을 유도한 양심화분에 이어 '다용도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 운영에 나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앞선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5일부터 소각용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하는 2종 분리수거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안전밀폐형 2개소 4개, 개방형 4개소 8개를 임실읍 향교일원 등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또한 실제 사람 크기의 배출 안내관을 설치하고 올바른 투기 요령과 시

간을 홍보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과 효율성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4개 읍·면 총 40개의 분리수거함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투기자의 양심을 깨우는 호리우스, 아스타 등을 심은 길이 75cm, 폭 75cm 크기의 양심화분을 같이 설치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청정지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청년 귀농·귀촌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 "인생2막 설계는 순창군에서"

### 군,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홍보 만전

순창군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청년 귀농·귀촌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순창군 귀농·귀촌인협의회 양환옥 회장을 비롯해 순창에서 귀농한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해 순창의 귀농귀촌 정책은 물론 지역의 문화 또는 농촌생활에 대한 가장 없는 상담을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3일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의 귀농귀촌에 대해 상담 받은 인원만 215명이다. 이들은 귀농시 거주할 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

다. 두 번째는 소득작물 재배, 이어 교육, 병원 시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상담결과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에서 상담에 참여한 인천시 우의정(35세)씨는 "순창군과 상담을 해보니 타 지자체에 비해 체계적인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번 상담을 계기로 순창으로 귀농귀촌의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양환옥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젊은 도시민이 순창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다"면서 "앞으로 귀농인으로 순창에 더많은 청년들이 귀농·귀촌인원만 215명이다. 이들은 귀농시 거주할 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

# 지역 소식통

## 임실군민회장 수상자 확정

임실군은 28일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제36회 군민의장 수상자로 박영호씨 등 7명을 선정, 발표했다. 군은 지난 25일 임실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36회 군민의장 수상자를 확정하고, 내달 9일 열리는 제55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 중 공적이 훌륭한 분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명예스러운 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기간장 및 사회단체장, 읍·면장으로부터 13명을 추천받아 후보자들에 대한 현지실사와 심사위원회, 본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로는 교육·예술·언론, 체육 등 향토문화 장남과 군민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자를 선발하는 문화체육장에 박영호(임실읍)씨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는 공익 새마을장에 최낙호(지사면)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지역내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는 산업장에는 이정심(오수면)씨가, 자랑스러운 임실군 출신으로 내고장 향토발전엔 헌신한 자를 선발하는 애향장에는 태방섭(성수면 출신)씨와 김병이(지사면 출신)씨가 선정됐다. 효행의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귀감이 되어 칭송받은 효자, 효부를 선발하는 효열장에는 박정자(임실읍)씨, 백대순(청운면)씨가 선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홍로 사과 탄저병 방제 신경써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이 끝났음에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과수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해인 탄저병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각별히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과 탄저병은 현재 발생이 심한 '홍로' 품종뿐만 아니라 '후지', '감홍' 품종 등에서도 발생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수 탄저병의 병원균은 생장온도 25℃~28℃에서 잠자기 이후 다습한 기후조건에서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빗물에 의해 다른 과실로 이동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탄저병에 감염된 과실은 감염 초기에는 검정색의 작은 반점 형태를 띠다가 감염이 진행될수록 감염 부위의 표면이 함몰되고 과실 내부는 갈색으로 변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탄저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원 내 통풍에 신경쓰고 배수가 잘되게 관리해 야하며 발생초기에 과실을 제거하고, 적용농약을 수확 전 방제시기에 맞춰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향교 골든벨 주인공은 누구?

### 남원중 이승주 학생 영예 역사문화인식 함양 특목



남원향교는 최근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남원향교가 주관하는 총 사업비 6,700만원의 사업으로서 청소년 자유허가제와 연계한 지역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우리고장 문화재바로알기 등 역사문화인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보는 '역사문화버스타GO', 예의를 중시하며 집권력 증강과 정신수

련에 중점을 둔 후호, 국궁 등 '삼력(三力)을 키워주는 전통수련', 지역매출 대표인물 및 남원 문화유적 바로알기 프로그램인 '청소년 문화골든벨!', 명륜당에서 즐기는 국악 공연, 규방공예, 문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륜당종류', 마지막으로 직접 전통 의복을 입고 문묘 분향, 알성, 향음 등을 할 수 있는 '1박2일 선비문화체험'의 5가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 골든벨을 울려 장원을 받은 주인공은 남원중학교 1학년 이승주학생이며, 장원을 비롯하여 10명의 학생들이 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남원향교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교가 고리타분한 옛날의 문화가 아닌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